

# 추억의 총장축제, 대동축제로 '업그레이드'

### 관심서 벗어나 대학생·지역민 등 함께 만든 축제로 차별화 성공 입택 동구청장 "추억·미래 담아내...세대·국경 초월 글로벌 축제로"

광주 대표 축제인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가 5일간 대장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광주시 동구는 지난 6일 폐막식을 끝으로 '제21회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를 끝마쳤다고 7일 밝혔다.

동구는 올해 축제를 관(官) 중심에서 벗어나 민(民), 학(學) 등 지역민 전체와 함께 꾸며 대동 축제로서 정체성을 한 단계 더 확고히 했다고 자평했다. 올해 축제는 '총장·밤·光·다시 타오른 열정, 영원히 빛나는 우리'를 주제로 총장로, 금남로, 5·18 민주광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지에서 열렸다.

축제 기간 동안 금남로에 설치된 메인 무대에서는 개막식 공연과 '추억의 감성 콘서트', 전국 전·현직 DJ와 함께하는 '열정 댄스 나이트' 등이 이어졌다. 하이라이트 행사인 '파이어아트 퍼레이드'에서는 광주시 동구 13개동 주민들이 만든 마을 상징물 행진에 이어 축제 상징 조형물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방문객들의 갈채를 받았다.

총장로와 금남로 곳곳에서는 다양한 체험·전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전일빌딩 앞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먹거리를 나누며는 '로맨스 파이어'를 비롯해 추억의 밀가루 놀이, 아랑고고장구 플래시몹, 오감(五感) 체험존 등 다양한 체험·전시 프로그램을 통해 7080세대의 향수와 MZ세대의 호기심을 끌어

냈다.

금남로 아스팔트 도로에 분필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길위의 스케치북' 체험에도 방문객이 몰려 금남로가 형형색색의 그림으로 가득 차기도 했다.

이밖에 제5회 동구청장배 배싱대회, 바둑·알까기 대회와 AI 로봇과 함께하는 오목 대결, 이색 결혼식 '인생 최고의 대로' 등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었다.

이번 축제는 시민들과 지역 대학생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시민 주도형 축제'로 꾸러졌다. 동구는 시민들로부터 제안받은 '총장 의상실 젊은이의 7080 코스튬', '명인·명장과 함께하는 총장 레트로 체험 프로그램', '총장축제 Build up 추억 오투 모테부러', '예술의 거리 그래피티 라이브 페인팅', '금남지하도상가 대축제' 등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더불어 축제에 앞서 조선선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K-컬처공연기획학과 학생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네 앞에선 레트로모드', '인형으로 보는 옛날 동화', '스트리트 슈퍼스타K' 등 젊은이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깃든 프로그램이 탄생했다.

일회용품 대신 대화용기를 사용하고, 재활용 무



지난 5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제21회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에서 '파이어아트 퍼레이드'에 참가한 계림2동 주민들이 '최강 타이거즈! 최강 계림2동'을 주제로 직접 만든 상징물과 함께 행진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인회수가 17대를 설치해 지속가능한 축제 문화를 만드는 데도 힘썼다. 금남로 일대에 설치된 스마트 가로등 화면으로 혼잡한 도로와 우회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등 축제 현장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

기도 했다. 입택 동구청장은 "올해는 '다시 타오른 열정, 영원히 빛나는 우리'를 주제로 과거의 추억과 미래의 희망을 함께 담아내는 축제로 치러졌다"며 "이번 축

제를 발판삼아 내년에는 지역을 넘어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축제를 위해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올 9월 '역대급으로 더웠다'

### 평균기온 26.4도로 평년보다 4.4도 높아...강수량은 114mm 더 내리

올해 9월 광주·전남 기온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됐다. 9월 한 달 강수량도 270mm로 평년(156mm) 보다 73% 많았다. 광주지방기상청이 7일 '2024년 9월 기후특성'을 발표했다.

9월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26.4도를 기록했다. 평년(22도)보다 4.4도 높았으며 기상 관측이래 가장 높은 9월 온도다. 2위를 기록한 1975년 9월(24도)보다도 2.4도 높았다. 광주·전남 주요 기상관측지점 7곳 중 총 5곳에서 9월 일최고기온 극값 1위를 경신했다. 광주가 지난 9

월 19일 35.8도를 기록해 가장 뜨거운 9월 날씨를 보였다. 목포(34.9도), 완도(35.7도), 장흥(34.9도), 해남(34.5도) 역시 일 최고기온 기록을 갈아치웠다. 광주·전남의 9월 폭염일수(일최고기온이 33도 이상)는 8.9일로 기상관측 이래 역대 1위를 기록했다. 평년(0.2일)을 크게 뛰어넘었고, 2위인 2011년(2.4일)보다도 3.7배 가량 많았다. 1월부터 9월까지 연간 폭염일수 역시 올해 33.1일로 역대 가장 많았다. 2위는 1994년(26.3일), 3위는 2018년(25.9일)이다. 올해 더위가 가장 오래 동안 이어진 셈이다.

올해 9월에는 낮뿐 아니라 밤에도 가장 더웠다. 9월 광주·전남 평균 열대야일수(밤최저기온 25도 이상)는 8.7일로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 연간 열대야일수 역시 37.8일로 가장 많았다. 기상청은 7월 하순부터 한반도 상공을 덮었던 이 중고기압(북태평양·티베트)이 9월 중순까지 이어지며 폭염이 길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9월 평균 강수량도 많았다. 특히 20~21일 사이 남쪽으로 몰려오는 북태평양고기압과 한반도 북쪽에서 일시적으로 확장한 찬고기 사이에서 발생한 정체전선과 중국 상해에서 발생한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다. 20일 순천에 200.8mm의 비가 내리면서 9월 일강수량 극값 1위를 기록했으며, 21일 진도군(287.6mm)·강진군(247.4mm)·광양시(182.6mm) 등 역시 9월 일강수량 기록을 새로 썼다. /장혜원 기자 hey1@

## 여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故 홍정은 3주기 행사 열려

여수해양과학고 현장실습생 고(故) 홍정은군 사고(2021년 10월 6일) 3주기를 맞아 각종 행사가 열렸다. '고(故) 홍정은 현장실습생 추모위원회'는 사고 현장인 여수이순신마리나 입구 사유지에 밤하늘의 별 故 홍정은 현장실습생 추모비를 건립하고 제막식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추모위원회 대표로 인사말에 나선 최광식 민주노동 여수시지부장은 "현장실습생의 부주의한 사고라는 단신에 그칠수 있었지만, 수많은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 추모비 건립까지 이르게 됐다"면서 "홍군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현장실습생에게 등불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홍군의 부친인 성기씨는 "아들 친구들이 이제 군대에 가고 제대도 하고 있다. 잊지 않고 기억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울먹였다. 또 특성화고 재학생·졸업생들은 학교 및 회사 근처 버스정류장에 추모 대자보를 붙이며 추모 행동도 진행했다. 홍군은 지난 2021년 당시 요트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간 지 10일 만에 요트 바닥의 따개비 제거 작업을 지시받고 잠수하다가 바다에서 숨졌다. /김디안 기자 kdi@kwangju.co.kr

## 가축 방역 인력난 심각하네

### 광주·전남 방역사 1인당 농가 375곳 담당...업무 과중·방역 대란 우려

광주·전남 지역의 가축방역사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 갑) 의원실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가축방역사 1인당 평균 담당 농가가 37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올해 기준 2명의 가축방역사가 303곳의 농가를 담당하고 있다. 방역사 1인당 연간 151.5곳의 방역을 하는 셈이다. 전남은 66명의 방역사가 2만5228농가를 맡아 한 명이 연간 382.2곳을 담당한다. 광주와 전남 모두 전국 평균(395.2곳)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여전히 가축방역사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축방역사가 업무 중 가축의 발에 채이는 등 안전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전국 기준 최근 5년(2020년~2024년 8월)간 가축방역사 안전사고는 총 193건으로 2020년 43건, 2021년 36건, 2022년 42건, 2023년 46건, 2024년 8월까지 26건 발생했다.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는 퇴사자도 늘고 있다. 전국 기준 최근 5년(2020~2024년) 퇴사한 가축방역사는 143명에 달했다. 2020년 18명이었던 퇴사 인원이 2023년 47명으로 2.6배 가량 증가했다. 송 의원은 "조류인플루엔자, 렘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축산업계의 시름이 깊은 상황에서 만성적인 가축 방역 인력 부족은 '의료 대란'을 연상케 한다"며 "정부는 가축 방역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력난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무첨색료 무합성향료**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